

# 프랑스

## 아에로스빠시알사와 닷소사의 연계 협력

월간<국방과 기술>  
편집실 엮음

東西화해 및 군축무드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防産市場이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有數의 선진 방산 업체들은 사업부문(Division)의 흡수 및 합병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등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상호 연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른 유럽의 사례로서 프랑스 아에로스빠시알사와 닷소사의 防産 연계 협력을 최근 동향으로 게재합니다. 또한 아에로스빠시알사의 한국 支社도 합작사업(희망)을 중심으로 함께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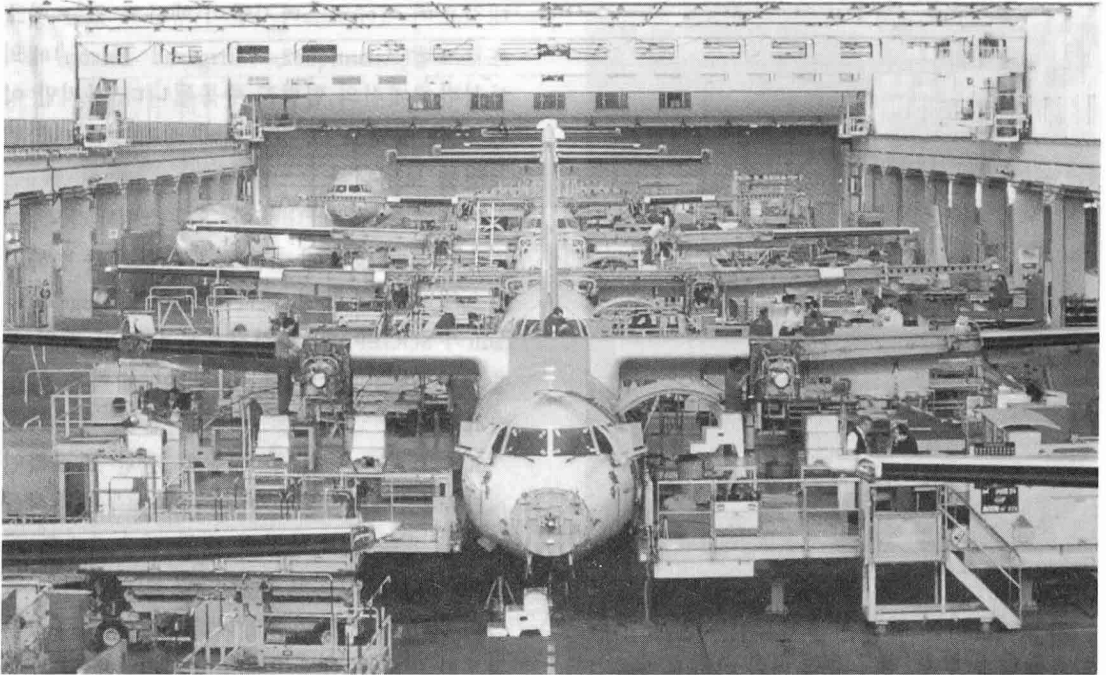
20년간의 오랜기간 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던 프랑스의 두 대표적인 비행기 제작사인 아에로스빠시알(Acrospatiale)과 닷소(Dassault) 항공은 서로의 기업특성을 존중하면서도 강한 구조적, 경영적 측면의 결합을 결정했습니다.

아에로스빠시알社의 Louis Gallois회장과 그의 파트너인 닷소 항공의 Serge Dassault 회장은 지난 9월 17일 협력방안조약에 서명했습니다. 프랑스 항공그룹의 창조로 여겨지는 이 계획은 12월 23일 프랑스 국방장관이 아에로스빠시알과 닷소항공의 밀접한 연계를 발표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모든 항공과 우주 산업을 포괄하는 이런 그룹의 연계는 중복투자를 피하고 다른 유럽의 거인들과의 경쟁관계도 가능케 합니다.

이런 연계가 가능했던 두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닷소항공의 취약성입니다. 항공기 시장의 위기는 Hermes 우주왕복선의 미래를 의심케하고, 전투기시장의 어려움도 이 회사가 프랑스 군대의 주문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에로스빠시알사와 닷소사의 결합은 중복투자를 피하고 다른 유럽회사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이에 국방장관 Pierre Joxe가 대만과의 60대의 Mirage 2000-5 계약에서 다운점, 프랑스군의 Mirage 2000-5 30대 구입계획의 추진은 닷소사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크게 했습니다. 또한 Pierre Joxe 국방장관 역시 원래의 의도인 합병은 어렵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연계는 연구개발, 하청과 공급, 영업과 기업전략등의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양측 담당자들은 아주 밀접한 구조적인 연계를 모색했으며 그것은 SOGEP라는 국가소유회사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국방부와 재무부에 의해 발표된 성명은 SOGEP에 정부의 닷소항공 소유지분을 이전, SOGEP의 닷소 주식소유분을 20%에서 36%로 꾸준히 증가시키고, 정부의 직접소유는 10%로 유지하며, 동시에 SOGEP의 아에로스빠시알사에 대한 주식소유분 7%도 40% 정도로 크게 증가되리라 언급했습니다.

결국 국방부의 계획은 정부참여 회사 SOGEP의 힘을 증가시켜 두 회사에서의 주요주주를 만들어 두 회사의 주요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데에 있습니다.

SOGEP로 표시되는 연합은 결코 상징적인 데 그치지 않습니다. 회장으로 Louis Gallois와 부회장으로 Serge Dassault를 갖게된 SOGEP는 조인트 회사활동의 중심점으로서 활동합니다.

두 회장은 각각 회사의 이사회에서 SOGEP를 대표하며, SOGEP에는 각각 회사에서 나온 3인으로 전략위원회가 구성되고, 회장은 교대로 역임합니다. 이 위원회는 1993년 1월 첫 미팅을 가졌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관계된 두 부서, 국방부와 재무부는 두 회사가 국방부의 재정지원을 받게될 연합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리라 언급했습니다. 프랑스의 두 대표적 회사는 앞으로도 첨예한 국제경쟁속에서 서로의 전문성을 이용, 연계하며 항공산업분야에서의 재구조정을 이루어 나갈것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협력방안들은 공급자와 하청업자들에게 대한 자질검사에 공통된 절차를 적용하며 이들을 공유하는것, 의욕적인 공동구매와 공동하청제도의 사용등입니다.

일반 마케팅 전략에서 예견되는 이익도 연계의 주된 면으로 보입니다.



Rafale 제작 모습

가능해보이는 협력은 구체적인 시장에서 단일판매팀을 구성, 닷소 군용기와 아에로스빠시알의 미사일을 동시에 판매케하는 것입니다.

두 회사의 갈등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둘의 협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20년전 ATR의 날개와 닷소의 Rafale의 날개제작을 가능케한 Falcon V 10F의 원형개발시기부터 협력은 시작됐습니다.

이외에도 Hermes 우주왕복선의 세라믹 화이버, Exocet 미사일의 「공기열역학과 공기역학에서의 공동연구, Ariane 로켓에서 닷소의 점화부품공급과 소프트웨어에서의 협력등이 행

해졌으며 아에로스빠시알이 행하고 있는 닷소 프로그램(Atlantique2, Mirrgeand Falcon)에의 하청관계에서의 협력도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협력도 그 잠재력에 비교하면 제한된 것인듯 보입니다.

언론에 언급된 내용이 혼돈스럽더라도 그 내용은 결국 닷소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변하지 않으며, 또한 「합병」이라는 단어도 Serge Dassault가 SOGEPA의 부회장으로 있는한 거의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 계획은 아주 중요합니다.

SOGEPA는 현재 두 그룹의 강한 조직적연계를 대표하며, 정부가 10%의 재무부주식을 이전할 경우 닷소항공에 대한 다수지배도 가능해 집니다. 그러므로 두 그룹을 대표하는 중심회사의 형성이 가능합니다. Serge Dassault는 정부가 원하는 한도내에서 SOGEPA에 남을 것입니다.

SOGEPA와 전략위원회가 즉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것은 기대되지 않고, 두 회사구조의 융합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의욕적인 협력과, 심지어 어느 시점에선 합병까지도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좌-우익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Serge Dassault 문제가 해결될때 가능해 집니다. 또한 남아있는 문제는 어떻게 완전히 상반된 두 산업 문화를 융화시키는가 입니다.

Dauphin 헬기의 군용형인 AS 565 Panther. 수중음파탐지기와 어뢰를 장착할수 있습니다



## 아에로스빠시알 한국지사 소개

합작사업을 중심으로...

**아에** 로스빠시알社 제품들은 약 20년전 부터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함대함 미사일로써 세계적으로 유명한 「Exocet」미사일을 1975년에 갖춘 세계 최초의 몇개 국가중에 하나입니다.

그뿐만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은 AS11과 AS12 공대함미사일을 갖춘 Alouette III 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귀빈 수송 임무를 위하여 4대의 VIP용 AS 332 「Super Puma」를 구입하였으며, 최근 산림청에서는 산불 진압용 AS-350 B2 Ecureuil 헬기 3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아에로스빠시알은 한국에 중형 여객기인 Airbus 항공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에로스빠시알 그룹의 한국 최대 고객인 대한항공은 40대 이상의 Airbus 항공기를 주문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10대의 A300-B2/4, 24대의 A300-600, 7대의 A330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 항공에서는 4대의 AS-365 「Dauphin」 헬기와 1대의 AS-332 「Super Puma」 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BO-105 1대 & BK-117 1대로 보유)

대한항공은 항공기 구매 뿐만 아니라 1988년부터 A330 및 A340 항공기 부품 제작사로서 실질적인 산업 동반자의 자리를 확보 하였습니다.

우주 산업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최초 위성인 「우리별 1호」를 '92년 8월에 Ariane 4호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시켜 궤도에 올려 놓았으며 '93년 9월 EXPO 기간중의 우리별 2호 발사에도 참여합니다. 따라서 아에로스빠시알그룹의 4개 부문이 모두 대한민국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끝으로, 아에로스빠시알 그룹의 한국 산업체와의 공동 협력안을 소개합니다. 아에로스빠시알 그룹은 산업 협력에 이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대형 여객기 제작사인 Airbus, Turbo-Prop 항공기 제작사인 ATR, 각종 미사



軍用 Super Puma인 Cougar AS 532

일을 생산하는 Euromissile, 영공 방어용 미사일 제작사인 Eurosam, 우주선 발사체 제작 회사인 Arianespace 그리고, 헬기 제작사인 Eurocopter 등이 있습니다.

항공기 부문에서는 현재와 같이 계속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Airbus 항공기 부품을 구입할 것이며, 또다른 기회가 한국 업체에 부여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개발될 ATR 100 인승 항공기의 공동생산 및 협력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미사일 부문에서는 최근 아프리카 지역전과 중동전에서 그 성능을 과시한 신형 대전차 미사일인 Milan을 한국에 소개하고자 하며, 이 미사일을 한국내에서 한국 기업체로 하여금 License 생산하고자 합니다.

헬기 부문에서는 독일의 Deutsche Aerospace (DASA)사와 공동으로 BO-105 헬기의 License 생산 및 조립 기술을 한국에 이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에로스빠시알은 앞으로 한국에 많이 늘어날 헬기 중, 우선 2.5톤급 「Ecureuil」와 4.5톤급 「Dauphin」 헬기들의 정비 지원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한국내에 헬기 정비시설을 갖춘 예정입니다. \*

(자료제공 : Aerospatiale 한국지사)